



오재원(오른쪽)이 두산의 원 클랜 맨으로 남는다. 프랜차이즈 스타, 덕아웃 리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2일 프리에이전트 3년 최대 19억 원 계약을 맺고 잔류했다. 계약을 마친 뒤 전통 대표와 악수하는 오재원. 사진제공 | 두산 베어스

“오재원은 덕아웃 리더이자 허슬두 상징”

지난해 1할타 극도의 부진 불구 수비·주루 등 디테일서 큰 공헌 6억 인센티브로 타격 부활 응원 오재원 “기쁘다, 책임감 가질것”

오재원(35)이 사실상 현역 생활을 두산 베어스에서 마무리하게 됐다.

두산은 22일 “프리에이전트(FA) 오재원과 3년간 최대 19억 원에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 세부조건은 계약금 4억 원, 연봉 3억 원, 인센티브 6억 원이다.

오재원은 두산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특유의 팀 컬러인 ‘허슬 두’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1군 데뷔 첫해인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두산 유니폼만 입었고, 이 기간에 1423경기 타율 0.270(4065타수

1099안타), 59홈런, 485타점, 276도루의 성적을 거뒀다. 2011시즌 도루 부문 타이틀(46도루)을 차지했고, 2018시즌에는 132경기 타율 0.313, 15홈런, 81타점, 15도루의 커리어하이를 찍었다.

문제는 2019 정규시즌이었다. FA를 앞둔 시즌에 98경기 타율 0.164(177타수 29안타), 3홈런, 18타점의 그야말로 처참한 성적을 냈다. 키움 히어로즈와 한국시리즈(KS) 4경기에서 10타수5안타(타율 0.500), 3타점의 맹활약으로 팀의 통합우승에 기여했지만, 정규시즌 부진이 워낙 심해 FA 계약에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뤘다. 3년 최대 19억 원(보장액 13억 원)은 분명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액수다.

●디테일의 강자

그러나 두산 구단의 생각은 달랐다. 김

태룡 단장은 지난 12월 초부터 “오재원은 향후 3년간 내야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선수”라고 했다. 실제로 오재원은 지난해 극도의 타격 부진에 허덕일 때도 수비와 주루 등 디테일에서 큰 힘을 보탰다. 더 강한 팀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타격이 살아나면 그만큼 활용도가 커진다는 의미다. 6억 원의 적지 않은 인센티브를 포함한 이유다. 오재원이 계약도 미뤄둔 채 미국에서 훈련에 매진한 것도 그래서다. 구단 고위관계자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계약금과 연봉은 다운됐지만, 2019시즌 기록이 좋지 않았기에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인센티브는 주전으로 뛰며 잘했을 때의 성적을 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덕아웃 리더의 가치

선수단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덕아웃

리더의 가치는 오재원에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만큼 두산에게는 프랜차이즈라는 상징성이 큰 선수다. 무형의 가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태형 감독이 오재원의 계약 공식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2020시즌 주장은 오재원”이라고 공표할 정도였다.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도 팀에 도움을 주는 매력적인 선수라는 증거다. 구단 관계자는 “주장이자 덕아웃 리더, 프랜차이즈 선수로서 역할에도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오재원은 “기쁘다. 주장으로서 올해도 책임감을 갖고 후배들을 이끌겠다”며 “개인 성적도 끌어올려 팀의 한국시리즈 2연패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재원이 두산에 잔류하면서 미계약 FA는 김태균과 손승락(이상 38), 고효준(37), 오주원(35) 4명만 남게됐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야구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11

스포츠동아

강로한의 뜨거운 겨울

외야수로 변신후 호주서 실전 강행군 팀 최고 83% 연봉인상…새 도약 각오

1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꼬박 80일. 강로한(28·롯데 자이언츠)의 이번 겨울은 한국의 추위 대신 호주의 강한 햇빛으로 가득하다.

강로한은 지난해 말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시즌 종료 직후부터 11월 말까지 김해 상동에서 진행된 마무리캠프를 완주한 뒤 별다른 휴식 없이 스파이크 끈을 동여뒀다. 당초

미국 교육리그 파견이 유력했으나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에 호주프로야구(ABL) 질롱 코리아 유니폼을 입었다. 이어 2월부터 시작되는 롯데의 애들레이드 스포팅캡스에 곧장 합류한다. 두 달 반을 호주에만 머무는 강행군이다.

2015년 롯데에 입단한 강로한은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첫째는 이름.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2018년 말, 강동수에서 강로한으로 개명했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복귀 첫해인 2019년 104경기에 출장해 타율 0.240, 4홈런, 25타점을 기록했는데 안타 69개 중 25개가 장타(36.2%)였다. 포지션도 바꿨다. 성민규 단장은 지난해 9월 부임 이후 강로한의 운동 능력에 주목했고 외야수로 포지션 변경을 주문했다. 스스로가 “스피드를 살리고 싶다”고 생각해왔던 터라 선포 수락했다. 새로운 자리에 적응하기 위해 마무리캠프부터 호주에서까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2일 연락이 닿은 강로한은 “주로 중견수로 나서고 있는데 훈련 때나 실전에서 ‘만세’를 부른 적은 없다. 부담감이나 거부감은 딱히 없다”며 “코너 외야보다는 중견수가 더 편하다. 투구 코스를 보며 미리 첫발 스타트를 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만족을 드러냈다.

타격에서는 삼진 감소를 목표로 삼았다. 강로한의 2019년 삼진율은 35.0%에 달했다. 250타석 이상 소화한 타자 중 리그 1위. 손목 힘을 앞세운 장타 능력은 검증됐지만 생산력이 떨어졌던 이유다. 강로한은 “결국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삼진을 줄여야 출루율도 올라간다”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루 개수도 올라가고 생산성도 쫓 것”이라고 강조했다.

2900만 원으로 최저연봉(2700만 원)을 겨우 넘겼던 연봉은 올해 5300만 원까지 뛰었다. 82.8%의 인상률은 팀 내 최고였다. 최하위로 연봉 피바람이 불었던 롯데에서도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강로한은 “부모님께 효도한 느낌”이라며 “앞으로도 효자가 되려면 꾸준히 활약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롯데 강로한

박병호가 올 시즌 후 FA 된다고?

풀 시즌 소화때 2022년 FA되지만 도쿄올림픽銀 이상엔 1년 당겨져 A등급 분류…기존 보상 범위 적용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34)가 2020 도쿄 올림픽 성과에 따라 2021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박병호는 메이저리그 도전을 마친 뒤인 2018년부터 원 소속팀 히어로즈와 연봉 계약을 맺어왔다. 새 시즌에는 20억 원에 도장을 찍으며 KBO리그에서 4번째로 20억



박병호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다.

KBO리그의 FA 제도 개혁과 맞물려 초고액 연봉자는 이제 FA 시장에서의 최고 관심 대상이 됐다. 흥미로운 점은 박병호의 FA 권리를 얻는 시점이 제도 개혁의 모든 상황과 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풀시즌을 소화한다는 가정 하에 박병호는 2년 뒤인 2021시즌이 끝나야 FA를 신청

할 수 있다. 즉 2022 FA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 바뀐 규정에 의하면 FA C등급을 받게 된다. 해당 시점에는 만 3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타 구단이 박병호를 영입한다 해도 보상선수를 내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바로 도쿄올림픽이다. 성과에 따라 FA 신청을 1년 앞당길 수 있다. 박병호는 최근 프리미어12 대회를 비롯해 꾸준히 태극마크를 달아 국가대표 포인트(1포인트=FA 등록일수 1일)를 상당수 확보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박병호의 등록일수는 2년 113일이다. KBO는 FA 자격 취득을 위한 ‘1시즌’을 1군 등록일수 145일로 규정하고 있다. 박병호가 올해 풀시즌을 소화하

면 3년 113일이 된다.

그런데 만약 박병호가 도쿄올림픽에 참가해 은메달(40포인트) 이상을 획득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펼쳐진다. 3년 153일(113일+40일)이 돼 FA 권리 신청을 위한 4시즌 소화가 완성된다.

박병호가 2021 FA 시장에 나오면 당연히 A등급을 받게 된다. 만 34세로 시장에 나오고 3년 평균연봉도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 보상 규정 범위가 적용된다. 즉, 타 팀이 박병호를 영입하려면 전년도 연봉의 200%인 40억 원과 보상선수 한명, 혹은 300%인 60억 원을 원 소속 구단인 히어로즈에 지급해야 한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2023년 셀러리캡 120억…초과 구단은 롯데뿐

선수들이 걱정한 삭감은 기우로

KBO 정은찬 총재와 10개 구단 대표들은 21일 리그 역사에 기록 될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프리에이전트(FA) 등급제 도입으로 효율적인 전력평준화가 가능해졌다. 셀러리캡은 각 구단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계획

을 세워 재정적 자립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상징성이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더 공정한 무대에서 흥미로운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가장 큰 관심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셀러리캡의 규모다. KBO는 2018·2019시즌 각 구단의 평균 페이롤(신인·외국인 선수 제외, FA선수 연평균 계약금 지급액 포함)

을 분석해 이사회에 보고했다. 현재 페이롤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3년 셀러리캡은 약 120억 원 규모다. 10개 구단 상위 연봉 400명의 연봉 총액을 구단 평균으로 나눈 값이 100억 원 안팎이며 그 금액의 120%를 셀러리캡으로 규정했을 때 산출된 금액이다. KBO가 조사한 결과 현재 리그에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구단은 단 1개 뿐이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구단은 롯데 자이언츠다.

롯데는 2019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101억83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여기에 이대호, 손아섭, 민병헌 등 FA 선수들의 계약기간 연평균 지급 계약금을 더하면 12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KBO가 발표한 셀러리캡 규정에 대해 각 구단이 통 큰 양보를 했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현재 대부분 구단의 페이롤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선수들이 걱정했던 삭감 바람은 기우가 됐다.

이정호 기자 rush@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